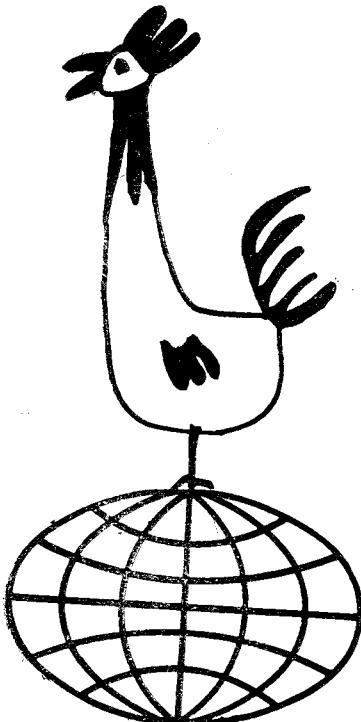


해외의 양계소식



미국

—콩 수확량 감소로 1971년 가격 강세 예상

미국시장에서 대두박의 가격이 지난 8월 11일 톤당 88.50불에서 8월 18일은 톤당 92.70불로 4.20불이 올랐다.

1970~71년 미국의 콩 생산량 추정은 11억 130만 뷔셀이다. 1970~71년에 소요될 양은 대두 박으로 7억 5,000만 뷔셀, 수출용 4억 5,000만 뷔셀, 종자나 기타 목적으로 6,500만 뷔셀로 총 12억 6,500만 뷔셀이 필요하다. 1971년의 대두 박 가격은 뷔셀당 10센트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970~71년도 콩의 유통량을 좀더 정확히 계산해보면, 1969~70년에 전년도 이월 3~2,400만 뷔셀과 수확량 11억 1,700만 뷔셀로 합계 14억 4,100만 뷔셀이 된다.

이중에서 지난 6월까지 대두박으로 6억 1,200만 뷔셀, 수출 3억 7,500만 뷔셀로 9억 8,700만 뷔셀이 소비되었고 7~8월에 대두박으로 1억 2,500만 뷔셀, 수출 5,000만 뷔셀로 1억 7,500만 뷔셀이 소비되었다. 또 지난 1969년 9월부터 1970년 6월까지 자연 손실된 양이 5,100만 뷔셀로 1969~70년에 총소비는 12억 1,300만 뷔셀이다.

1969~70년 생산량 14억 4,100만 뷔셀에서 12억 1,300만을 제하고 1970~1971년으로 이월될 양은 9월 1일 현재 2억 2,800만 뷔셀이다.

그러므로 1971년에 공급될 수 있는 콩의 총량은 1970~71년 예상수확고 11억 1,300만 뷔셀과 이월량 2억 2,800만 뷔셀을 합쳐 13억 4,100만

류셀이다.

스페인

—1969년 양계산업에 최대의 불황

1969년 스페인이 양계 생산물의 생산파악으로 입은 손해가 무려 20~30억 페세타스(2,600~4,000만불)나 되었다. 그러나 1970년에는 많이 호전 되었다.

1968년 6개월령 이상 닭 사양 수수가 4,790만 인데 이것은 1939년 이래 최고이며 1967년보다 6.5% 증가한 것이다.

스페인에서 큰 양계 단지는 타라고나(Tarragona) 근처의 로이스(Reus), 발렌시아(Valencia), 세빌(Seville), 톨레도(Toledo), 마드리드(Madrid), 발라돌리드(Valladolid), 카탈루나(Cataluna) 등이며 이 지역에서 전체가금생산량의 62%를 점하고 있다.

육계 도매가격은 1965년 kg당 50.40 페세타스(25센트/lb), 1968년 47.20페세타스/kg(24센트/lb)이던 것이 1969년 40.38 페세타스/1g(20.7센트/lb)로 하락했다.

이러한 가격의 하락은 1963년 육계 생산량이 12만7천%이던 것이 1969년 32만5천%로 급증했는데 이 중 6만수가 전업 양계가로부터가 아닌 농가에서 나온 노계이며 단위당 생산은 저하된 것이다.

생산파악의 타개책으로 시장 가격을 조정하기 위하여 수출의 길을 터놓았다. 그 좋은 예로 아프리카 북쪽의 카나리아 군도가 전에는 텐마크나 화란으로부터 수입하면 것을 겨울 관광 시즌에는 1주일에 600톤씩 스페인으로 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지금은 북아프리카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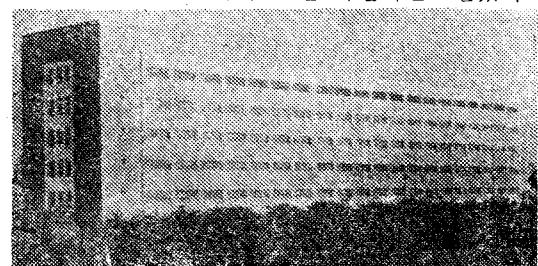
한편 계란산업은 지중해 연안 타라고나(Tarragona)근처의 로이스(Reus)에 집중되어 있다. 스페인의 계란산업은 전체 농업 생산의 5.5%를 차지한다. 토이스 지방의 협업체중 가장 큰것이 유니온 아그라지아 협업농장인데 여기는 1,000~3,000수 사이의 계군을 가진 농장들이 모여서 이루어졌으며 1965년부터는 현대식 사료공장을 세워 회원들에게 아주 싼값으로 공급해주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일부 북쪽 지방을 제외 하고는 잘색란이 인기가 없다.

육계와 마찬가지로 계란도 1969년에 생산이 정점에 도달했지만 가격은 형편없었다. 계란생산량을 보면 1963년 65억 8,800만개에서 1969년 75억개로 늘었다.

가격변동은 1968년 타스당 27.13페세타스(100개당 2.57불)이 1969년 타스당 23.58페세타스(100개당 2.24불)로 1965년 23.26페세타스(100개당 2.07불) 이래 최악의 사태를 보였다.

이러한 문제점은 타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효과적인 생산조절이라고 한 기술자는 말했다.



<현대식인 스페인의 제사>

덴마크

—1969년 중동 극동에 계육 12,000% 선적

1969년 서구 수출량의 30%를 차지하는 텐마트는 계육의 최대 공급처이다.

유럽 공동시장

—서독 1975년까지 계육소비의 45%

수입에 의존

1970년 서독의 계육 생산은 25만 톤인데 소비는 45만 2천톤으로 소비가 월씬 많았는데 이 경향은 앞으로 계속되어서 1975년에는 생산이 5만톤 증가한 30만 톤에 비해 소비는 9만톤이 증가한 54만 3천톤이나 될 것이다.

부족량은 EEC 가입국중 남는 나라로 부터 수입을 해야 하는데 서독으로 수출하는 나라를 보면 화란이 금년 12만7천톤에서 1975년에는 13만8천톤, 프랑스가 70년 41,000톤에서 75년 5만톤, 벨지움·룩셈부르크가 70년 23,000톤에서 1975년 25,000톤, 이태리가 1970년 2,000톤에서 1975년 3,000톤을 공급해 주게 될 것이다. □□